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3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30(수) 오후 10시 15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30.(수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박성준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윤경민 사무관(044-203-5652)

美 의회 코리아 코커스 의장과 한미 FTA 10주년 성과 등 논의

-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美 의회와 긴밀한 협의 -
-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, 철강 232조 관심 당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.30(수) 저녁 10시 15분(미국 동부 시간 오전 9:15)에 **아미 베라**(Ami Bera) **미국 하원의원**과의 **화상면담**을 통해 **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**에 대해 논의함.

* 아미 베라(Ami Bera)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州의 민주당 정치인으로, 한국 스터디 그룹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지한파 의원이며,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임

【 아미 베라 美 하원의원 화상면담 개요 】

- 일시 : '22.3.30(수) 22:15 / 화상
- 참석자 : (우리측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, (미측) 아미 베라(Ami Bera) 하원의원 등
- 주요 의제 :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, 전문직 비자쿼터, 철강 232 조치 개선 등

○ **(한미FTA 10주년)** 양측은 그간 **한미 FTA**가 **다양한 품목의 교역을 확대하는 핵심 기반으로 역할**했을 뿐 아니라, **양국 기업들간 신뢰를 구축**하여 **반도체, 배터리, 백신 등 핵심 산업 분야**에서 **공급망 협력**을 **추진**하는 데에 **기여했**다고 평가함.

○ **(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)** 이어서 **한미 FTA**를 기반으로 **발전**해 **온** 양국의 **통상협력 관계**가 미국이 새롭게 추진중인 **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**를 통해 역내에서 **경제 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**하는데 **기여**할 수 있을 것이라 공감함.

- 여 본부장은 미측의 **역내 경제협력 확대 노력**을 평가하며,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**개방성, 투명성, 포용성**의 원칙을 토대로 **긍정적 방향**으로 **역내 다수국가**가 **수용 가능**한 **기준 및 협력을 포괄**해야 함을 강조함

○ **(전문직 비자쿼터)** 또한, 양측은 양국간 **경제협력**이 **한단계 더 도약**하기 위해서는 **인력교류가 필수적**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, **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**과 관련한 **미 의회 내 추진사항**을 논의함.

○ **(철강 232조)** 한편, 여 본부장은 2주전 워싱턴D.C.에서 **하원 세입위 의원들과 면담**시 美**의원들도 232조치에 대한 우리의 우려**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**협조 의지를 밝힌** 것에 이어,

- **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**들도 **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줄 것**을 당부함.

□ 끝으로, **여 본부장**은 "올해 10주년을 맞이한 **한미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관계**는 **최고의 시기**를 맞고 있다"고 언급하면서,

○ **한미관계의 발전**을 위한 **아미 베라 의원의 노력에 사의**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당부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윤경민 사무관(☎ 044-203-56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